

가톨릭의사회의 초창기 활동상황

金 雄 奎

〈전 한국가톨릭의사협회장〉

지금부터 약 41年前인 1947年 4月14日 朴秉來 先生의 정성과 노력에 依하여 「방지거사베리오會」라는 會가 새로 생겼으며 이것이 서울가톨릭의사회의 前身이었다. 이會는 서울에 있는 가톨릭信者인 醫師, 齒科醫師 看護員 등 약20名이 모여서 만든 會였고, 勿論 朴秉來 先生이 會長이었다. 그 當時에는 會員數도 매우 적었지만 그후 每年 會員數도 增加하게 되었으며 방지거사베리오 침례일에는 皮정을 하였고, 無醫村診療를 한일도 여러차례 있었고 또 合唱隊를 組織하여가지고 各 綜合病院을 巡訪慰問한 일도 있었다. 또 特記할만한 일은 6.25當時 朴秉來 先生, 金賢奎 先生등 6名의 會員이 國防部 선무반으로서 平壤戰災民 無料診療班을 組織하여 平壤까지가서 20日間에 걸쳐서 約6,000余名의 平壤戰災民을 診療해 준 일도 있었다.

其後 會員의 急進의인 增加에 따라 「방지고사베리오」會는 發展의으로 解消되과 同時에 1965年 5月 1日에 서울가톨릭의사회가 새로 發足하게 되었다. 總會를 열어서 會則도 만들고, 任員이 選出되어 會다운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그때에 初代 會長으로서 제가 選出되게 되었다.

가톨릭 醫師會가 創立된 후에 3개월 마다 여러 會員들에게 通知를 내고 몇번 會議를 召集하여 보았으나, 영-모이지 않고 會員이 不過 10名 內外가 모일 뿐이었으므로, 맥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또 아무일도 할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여, 무슨 方法을 講究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案出해 낸 것이 그 當時 한창 流行하고 있던 계를 利用하기로 하였다.

처음에 가톨릭 醫師會의 中心이 될 만한 會員을 約20名을 제가 招待하여 自費로 저녁을 한턱 잘

낸 後에 事情을 해 보았다. 지금 가톨릭 醫師會가 이러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계의 形式을 취하여 모이도록 하는것이 좋을 듯 한데 여러 先生님들 協助하여 주시기를 바라다라고 付托의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贊成하여 주셔서 다음달 부터 곧 實施하기로 하였다. 그날이 1967. 4. 21 이었다.

그래서 곧 계를 조직하여 다음 달부터 매달 21日에 市內의 有名한 某 그릴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모이지 않았던 會員들을 그후에 제가 일일이 찾아가거나 또는 電話로 連絡하여 21日 계에 들도록 勸誘하였더니 數個月內에 40名으로 會員數가 增加하게 되고, 마침내 50名 가지로 늘게 되어 계를 2組로 만들어서 每月 두사람이 계금을 받아가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계로서 회원을 모이도록 하여 계금을 탄 사람이나, 탈 사람이나 모두가 잘 出席하게 되고 會는 아주 盛況을 이루게 되었다. 每月 21日이면 40~50名의 會員들이 모여서 和氣애애하게 카테일 파티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dinner party를 하게되며 食事が 끝나게 되면 神父님의 講論이 있어서 會員들의 信德을 굳건히 하고 信仰心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때로는 神父님 以外에 가톨릭教徒인 著名人士를 招請해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그 中에서도 玄錫虎 先生, 柳洪烈 先生, 李瑞求 先生들의 말씀은 매우 印象的 이었고 內容도 充實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繼續해 나감에 따라서 會員間의 親睦도 잘되고, 神父님들의 有益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니 會員들이 氣分이 좋아져서 매달 2

1日 저녁을 기다리게 꿈 되고 自然히 마음이 끌리게 되는 滋味있는 會로 發展하게 되었다. 가톨릭 醫師會費는 金에 包含시켜서 받았으니 會費는 自動적으로 걷우어지게 되어 힘이들지 않았다.

그러나 회원들은 모두 다 바쁜 職責에 매어있었기 때문에 醫療行爲를 통한 奉仕事業은 할 수 없었으나, 1968年 9月 21日, 月例會에서는 丙寅殉教者 24位 시복式 慶祝行事贊助金으로서 35萬 2千원을 걷우어서 主教館에 納付하였으며 1969年 10月에는 一線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從軍神父團에 誠金 26,000원과 雜誌 50卷을 從軍神父團長이시며 原州教區長이신 池主義님께 傳達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계의 形式으로 始作된 月例會는 제가 會長職을 辭任한 1969年 5月 21日 以後에도 오래동안 繼續하였다.

그 當時에는 가톨릭 醫師會는 서울과 大邱에 밖에 없었지만 大邱 가톨릭醫師長인 金鍾仁 先生을 만나서 한국가톨릭 醫師協會를 組織하자고 議論한 後에 國際가톨릭 醫師協會長인 Dr. Alimurung氏를 招請해서 그가 來韓한1968년 3월 31일에 서울과 大邱의 가톨릭 醫師會員들이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 모여서 韓國가톨릭 醫師協會를 創立하였다. 그 때에 初代會長으로 제가 選出되게 되었다.

그후에 釜山가톨릭 醫師會가 1968年 5月 1일에 創立되었고, 또 馬山가톨릭 醫師會가 1969年 10月 3일에 創立되었으며, 또 그後에 全州, 大田, 仁川가톨릭 醫師會가 創立되어 現在에 와서는 數가 10개로 확대 되었으며 會員數도 顯著하게 增加되었음을 볼 때에 感慨無量한 感을 禁키 어렵다.

한국가톨릭 醫師協會로서는 제가 會長으로 있는

동안에는 社會活動이나 奉仕事業을 한 記憶은 없으나 會誌를 제가 맡아서 發行하였고, 또 일년에 한번 씩 회정을 한 記憶이 있다.

1970年 總會때에는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大田教區長인 黃性玫 主教님 指導로 회정을 하였으며, 그 때에 회정에 參席하였던 會員은 約40名이며 그 中에는 夫人들도 15名가량 包含되어 있었다. 그 때에 參席하였던 會員中 朴秉來 先生 明柱完 先生, 金錫煥 先生, 李鍾浩 先生은 그後에 作故하였고, 지금은 안계십니다.

그 때 회정이 끝나는 1970年 3月 22일에 韓國가톨릭 醫師協會總會를 開催하고 友愛的 분위기 속에서 金鍾仁 先生을 後任會長으로 金錫煥 先生과 李性寬 先生을 副會長으로 選出하고 앞으로 各教區에 가톨릭 醫師會 組織을 促求하여 韓國가톨릭 醫師協會의 앞날의 發展에 努力하기로 하였으며 또 1971年の 회정과 總會는 大邱가톨릭 醫師會에서 主管하여 開催하기로 하였으며 가톨릭 醫師協會雜誌 刊行委員會를 두어, 어김없이 雜誌를 發刊키로 合議를 보았다.

그 當時의 各 가톨릭 醫師會의 名單을 볼것 같으면 서울이 65名 大邱가 27名, 釜山이 60명 馬山이 14명 모두 合해도 166名 밖에 안되었는데, 現在에는 서울만도 約300名 가량이고, 나머지 各地의 醫師會를 合하면 莫大한 會員數로 成長하였으니 會員들이 誠意만 내게된다면 큰 奉仕事業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러분께서는 더욱 奮發하시어 가톨릭 의사회로서 할 수 있는 좋은 事業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